

하상주보



천주교 성 정 바오로 성당
ST. PAUL CHUNG CATHOLIC CHURCH
Catholic Diocese of Arlington, Virginia

2022년 7월 24일
제1906호

주임신부: 김태진 베네딕토

보좌신부: 이태섭 요한사도

사도회장: 황원균 알렉산더

연령회장: 홍의훈 요셉 (703 966 8206)

사무실: 703 968 3010

팩스: 703 968 3013

주소: 4712 Rippling Pond Drive, Fairfax, VA 22033

감사와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루카 22,19)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여라.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드러내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
날마다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된 모든 이를 저희도 용서하오니
저희의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루카 11,2-4)



〈The Lord's Prayer〉, James Tissot

연중 제17주일 조부모와 노인의 날 (다해)

제 1 독 서 창세 18,20-32 | 제가 아 된다고 주님께서는 노여워하지 마십시오

화 답 송 시편 138(137) | ◎ 주님, 제가 부르짖던 날, 당신은 응답하셨나이다.

제 2 독 서 콜로 2,12-14 | 하느님께서서는 여러분을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우리의 모든 잘못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 우리는 성령을 받아 하느님의 자녀가 되었네. 이 성령의 힘으로
우리가 하느님께 “아빠! 아버지!” 하고 외치네.◎

복 음 루카 11,1-13 | 청하여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청하여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 ¹ 예수님께서 어떤 곳에서 기도하고 계셨다.
그분께서 기도를 마치시자 제자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주님,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가르쳐 준 것처럼,
저희에게도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 ²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여라.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드러내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
³ 날마다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⁴ 저희에게 잘못된 모든 이를 저희도 용서하오니 저희의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
- ⁵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 가운데 누가 밧이 있는데,
한밤중에 그 밧을 찾아가 이렇게 말하였다고 하자.
‘여보게, 빵 세 개만 꾸어 주게.
⁶ 내 밧이 길을 가다가 나에게 들렀는데 내놓을 것이 없네.’
⁷ 그러면 그 사람이 안에서,
‘나를 괴롭히지 말게. 벌써 문을 닫아걸고 아이들과 함께 잠자리에 들었네.
그러니 지금 일어나서 건네줄 수가 없네.’ 하고 대답할 것이다.
⁸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 사람이 밧이라는 이유 때문에 일어나서 빵을 주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그가 줄곧 줄라 대면 마침내 일어나서 그에게 필요한 만큼 다 줄 것이다.
⁹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청하여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너희가 얻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¹⁰ 누구든지 청하는 이는 받고, 찾는 이는 얻고,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다.
¹¹ 너희 가운데 어느 아버지가 아들이 생선을 청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겠느냐?
¹² 달걀을 청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¹³ 너희가 악해도 자녀들에게는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야 당신께 청하는 이들에게
성령을 얼마나 더 잘 주시겠느냐?”

복음 묵상

신학생 시절, 성체 조배를 할 때 자주 분심이 들었던 저는 주위의 동료들을 보면서 그들에 대한 부러움과 기도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저 자신에 대한 부끄러움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보니 참으로 부끄러워했어야 하는 점은, 그 당시 어느 누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청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오늘 제자들은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청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에게 기도 내용과 함께 그 자세까지도 알려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안에서 “아버지”라는 호칭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어떠한 군더더기도 없이 “아버지”라고 부르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느님을 부르실 때 사용한 이 호칭은 아들과 아버지의 친밀하고 특별한 관계를 말해 줍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에게도 이 호칭으로 하느님을 부르라 하십니다. “이분이 네 어머니시다.” (요한 19,27)라고 말씀하시며 성모님을 어머니로 소개하신 것처럼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을 당신께서 하느님과 맺고 있는 친밀하고 특별한 관계, 곧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초대하십니다. 아버지와 나누는 친밀함은 기도의 핵심이며 목표입니다. ‘아버지’라는 호칭 하나만으로 ‘다른 민족 사람들의 빈말’(마태 6,7 참조)이 필요 없습니다.

아울러 ‘아버지’라는 호칭은 아버지와 이루는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한 자녀라는 사실도 알려 줍니다. 서로서로 형제로 대하는 것이 ‘아버지’라는 호칭의 진정성을 보여 줍니다. 우리의 기도가 더 단순해지고 깊어져야 하겠습니다.

〈김인호 루카 신부〉

프란치스코 교황성하의 제2차 세계 조부모와 노인의 날 담화 (2022년 7월 24일)

“늙어서도 열매 맺으리라” (시편 92[91],15)

사랑하는 여러분,

“늙어서도 열매 맺으리라” (시편 92[91],15). 시편 저자의 이 말은 기쁜 소식, 곧 제2차 세계 조부모와 노인의 날을 맞이하여 우리가 모든 이에게 선포할 수 있는 참된 ‘복음’입니다. 이 말은, 삶의 이 단계에 대하여 세상이 가지는 생각은 물론, 우리 노인들 가운데 미래에 대한 어떤 기대도 품고 있지 않은 일부가 보여주는 암울한 체념의 태도와는 상반되는 말입니다.

많은 이들이 나이 드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사람들은 나이 드는 것을, 피하면 좋을 일종의 질병으로 치부합니다. 사람들은, 노인들이 결코 자신들의 관심 대상도 아니고, 자신들이 노인들의 문제를 뒤치다꺼리하지 않도록 노인들을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요양원이나 시설에 따로 떨어뜨려 두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버리는 문화’의 사고방식입니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우리 가운데 있는 가난하고 힘없는 이들의 취약함이 우리 마음에 와닿지 않게 하고, 우리가 ‘그들’과 그들의 어려움을 우리와 무관하다 여기며 그들을 우리와 어느 모로든 다른 존재라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성경의 관점은 다릅니다. 성경이 가르쳐주는 것처럼 오래도록 사는 것은 축복입니다. 그리고 노인들은 꺼려야 할 버림받은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충만한 생명을 주시는 하느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살아있는 징표**입니다. 행복하여라, 노인과 함께 사는 집! 행복하여라, 노인을 공경하는 가정!

노년은 항해를 포기하고 돛을 접어야 하는 때가 아니라 **여전히 열매 맺는 시기**입니다. 새로운 사명이 우리를 기다리며 미래를 바라보라고 부릅니다. “인간미가 흐르게 하는 관심과 생각과 사랑에 관한 우리 노인들의 특별한 감수성이 다시 한번 많은 이들의 소명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노인들의 젊은 세대들을 향한 사랑의 징표가 될 것입니다.” 이는 “온유함의 혁명”, 곧 영적이고 비폭력적인 혁명을 위한 우리 노인들 나름의 헌신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조부모와 노인 여러분, 이러한 혁명 안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주십시오.

세계 조부모와 노인의 날은, 성경 말씀처럼 주님께서 ‘장수를 누리게’ 해주신 모든 이와 더불어 경축하고자 하는 **교회의 바람**을 다시 한번 기쁘게 선포하는 기회입니다. 이날을 함께 경축합시다!

여러분의 본당과 공동체에 이날을 알려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집에서든 요양원에서든 사무치는 외로움 안에 살고 계신 연로하신 분들을 찾아갑시다. 그 누구도 이날에 외롭다고 느끼지 않도록 합시다. 누군가 찾아오리라는 기대감은, 우리 노인들이 아무것도 기다릴 것이 없다고 여기며 보내는 하루하루를 바꿀 수 있습니다. 첫 만남부터 새로운 우정이 피어날 수 있습니다. 독거노인 방문은 우리 시대에 이루어지는 자비의 활동입니다!

여러분 모두와 여러분의 소중한 이들에게 저의 사랑 어린 친밀함의 약속과 함께 교황 광복을 전합니다. 여러분도 부디 저를 위한 기도를 잊지 말아 주십시오!

〈전문 보기 : <https://cbck.or.kr/Notice/20220432>〉

**전대사 받는 조건****‘제2차 세계 조부모와 노인의 날(7/24)’에**

- [1] 각자 진심으로 뉘우치고 **고해성사**를 받고
- [2] **영성체**를 하고
- [3] 교황님의 7월 기도 지향인 ‘노인들을 위해’ 기도하며

※ 아래 내용(①,②) 중 하나를 실천할 경우 모든 신자들은 전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① 진정한 참회와 사랑의 정신으로 미사에 참여하기
- ② 도움이 필요한 어려움을 겪는 연로한 형제자매들 (병든 이들, 버려진 이들, 장애인)을 방문하거나 커뮤니케이션 매체를 통해 만나서 충분한 시간 보내기

1 7주간의 여름 성경 특강

- 일시 : 매주 수요일 오후 7:30 - 8:30
- 주제 : 7월 27일(수) - '절망과 구원'(판관들)/ 판관기
- 강사 : 정인준(파트리치오) 신부님
- 문의 : 교육부장 (571) 275-0691
- 강의 일정과 제목은 게시판을 참조해 주세요.

2 수녀님 연피정 안내

- 안 다니엘 수녀님 : 7월 26일(화) - 8월 3일(수)
- 수녀님을 위해 기도 중에 기억해 주세요.

3 병자 영성체

- 일시 : 8월 6일(금)
- 신청 : 조영인 요셉 (703) 819-8138 또는 사무실

4 미사 전 성당 로비에서 침묵을 지켜주세요

- 성당 로비에 들어서면 침묵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 성당 안에서 기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 미사 전에는 정숙을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주차 질서를 지켜주세요

- 주차 질서를 지켜 주시고 문을 열 때 옆 차량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 주차하실 때 실수로 옆 차량을 흠집을 낸 경우 사무실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6 CYO 성가대원, 피아노 반주자 모집

- 미사 중 노래할 성가대원과 피아노 반주에 관심있는 학생들을 모집합니다. (6th-12th 대상)
- 문의 : 조 스테파니아 (703) 725-3167

7 주일학교 등록 안내 (K-12th)

- 2022 - 2023 주일학교 등록을 성당 로비에서 받습니다.
- 얼리 버드 등록 기간 : 7월 10일(일) - 7월 31일(일)
2시 미사 전·후
- 등록비 : 한 자녀 - \$100 / 한 가정 두 자녀 - \$180 / 한 가정 세 자녀 이상 - \$200 (7월 이후)
- *Early Bird Registration Discount(July 10 - 31):
\$10 off 1 child / \$20 off two children
- 문의 : CCD 윤정 보일 (703) 371-3589
CYO 구아름 (703) 599-8869

8 주일학교 교리교사 모집

- 문의 : 윤정 보일 CCD 교감 (703) 371-3589
구아름 CYO 교감 (703) 599-8869

9 체육관 사용 안내

- 하상관 체육관 사용을 8월부터 재개합니다.
- 사무실에 준비된 신청서를 제출해 주시면
- 회장단 회의 검토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2차

세계 조부모와 노인의 날 기도

주님,
저에게 장수의 복을 베풀어 주시고
주님께 피신하는 이들이
언제나 열매를 맺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오, 주님,
저의 체념과 절망을 용서하시고
저의 기력이 쇠하여도
저를 버리지 마소서.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미래를
주님께서 저에게 맡기신 사명을
희망으로 바라보도록 가르치시고
제가 끝없이 주님을 찬미하게 하소서.

저를 주님의 은유함의 혁명을 이루는
장인으로 삼으시어

저의 손주들과
주님 안에서 쉼 곳을 찾는 모든 어린이들을
사랑으로 지키게 하소서.

오, 주님,
프란치스코 교황을 보호하시고
주님의 교회가 세상을
외로움에서 구하게 하소서.
또한 저희의 발걸음을 평화의 길로 이끄소서.
아멘.

〈교황청 평신도 가정생명부〉

하상관 사용시 지켜야 할 사항

- ① 장소 사용은 가톨릭 신자들의 화합과 일치를 위해서만 사용할 수 있다.
- ② 사용 후 정리 정돈을 철저히 한다.
쓰레기, 원 상태의 물품이 아닌 것은 치운다.
- ③ 퇴실 시 건물 내부에 있는 전등이 모두 꺼졌는지 확인한다.
- ④ 하상관에서는 음식을 먹을 수 없다.
- ⑤ 체육관 출입 시 굵이 보족한 신발은 출입을 금한다.
- ⑥ Locker Room과 샤워실 사용 시
사용자(사용 책임자)가 깨끗이 청소하고 떠난다.
- ⑦ 위 사항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체육관 사용이 제한될 수 있다.

체육관 사용중 발생하는 모든 사고(개인 상해나 재산상의 손해 등)에 대해 교구, 성당, 사제, 이사회, 직원, 시합/행사/대회 관련자와 단체 등은 법적 책임이 없음에 동의해야 하며 어떠한 법적 조치나 책임을 전가하지 않는다는 서약을 해야 합니다.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2022년 7월 17일(연중 제16주일)

주일 헌금	\$ 5,972.00
교무금	\$ 10,230.00
교무금(신용카드)	\$ 3,050.00
2차 헌금	\$ 2,513.00
감사 헌금	\$ 260.00
온라인 봉헌	\$ 3,440.00
합계	\$ 25,465.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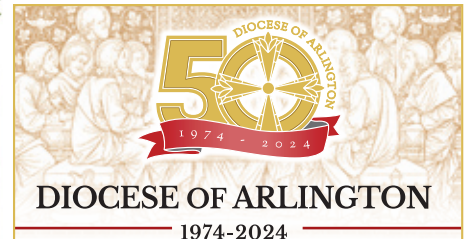
♥ 주일헌금 및 2차 헌금의 세금공제를 원하시는 분은
세금공제 확인용 봉헌예물 봉투를 사용해 주십시오.

버지니아 성 정바로로 성당 제공
KACM TV 하이라이트

Cox Ch. 30, 830
Fios Ch. 30

7월 28일(목) 오후 5:00-6:00
7월 29일(금) 저녁 8:00-9:00
7월 31일(일) 오전 6:00-7:00

1. 주일 강론
2. 윤원진 신부의 위대한 성인들 :
“당신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시어”



DIOCESE OF ARLINGTON

1974-2024

알링턴 교구 설정 50주년

알링턴 교구는 2024년 교구 설정
50주년 회년을 준비하며 신앙의 기본 진리에
대한 영적, 지적 쇄신을 향하여
3년 간의 여정을 시작합니다.

Year One (2021.11.21 시작) “Remember”

감사하는 마음으로
교구의 과거를 돌아보고 기억합니다.

<https://www.arlingtondiocese.org/jubileehome/>


미사 시간 안내(Mass Schedule)

주일미사	• 8:00 AM • 10:00 AM(교중미사) • 2:00 PM(학생미사) • 5:00 PM(청년미사)
토요일 저녁 주일 미사	• 7:30 PM
월, 목, 토	화, 금 수
• 6:00 AM	• 7:30 PM • 11:00 AM



Find a Mass near me

여행지에서 가장 가까운 성당과
미사 시간을 찾을 수 있습니다.

www.masstimes.org